

셀 공과 (12월 25일)

* 성경 말씀 : 요한복음 1:1-18

* 제목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 외울 말씀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14)

1.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다림 - 메시아를 기다리며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절대 한계 앞에 선 사람들은 내 존재 밖 하늘에서 메시아와 같은 존재가 내려와서 이 땅의 어둠과 절망을 종식시켜 주길 기대하였다. 성경은 온통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으로 가득하다

창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역사 속에 죄와 죽음을 초래한 첫 번째 원인자인 뱀(사탄)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고 그 권세 아래 사로잡힌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야! 그 날이 되면 죄와 저주는 사라지고 자유, 해방, 치유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야!

요 1:6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요한은 집안이 가난하다거나 가세가 기울어서 광야에서 지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요한은 부유한 삶에 관심이 없었다. 보여지는 삶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인위적인 삶을 버리고 오로지 하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 그러다가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미리 보게 되고 메시아가 오시는 소리를 듣는다.

마 3:3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정도가 아니라 그의 길을 열어 간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모습일지!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아주 선명하게 외치고 있다.(요 1:7-9)

요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직 이름도 없고 한 일도 없는 그 예수가 죄를 씻고, 불행, 저주를 씻기 위해 오신 분으로 보여진 것이다.

2. 성탄의 본질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탄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다. <말씀>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로고스>이다. 고대 헬라 세계에서 로고스는 우주의 원리, 역사를 운행하는 법칙, 최고의 논리체계를 뜻하는 말이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당시 현인들은 언젠가 이 보이지 않은 우주의 법칙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리라고 믿기 시작했다. 요한은 바로 이 로고스가 육신으로 나타났는데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한다.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우주의 원리! 절대 이성, 절대 논리인 로고스라는 것이다.(요1:18) 성탄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내 안으로

오신 날이다. 마리아가 이것을 알았다! 어떻게 비천한 여종 속에 메시야가 오실 수 있느냐고! 어떻게 이 초라한 여종 속에 신이 오실 수 있느냐고!

그런데 더 큰 신비가 있다. 그 말씀이 화려한 영광의 모습이 아닌 육신으로 오신다는 것이다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자기 포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다. 이 모습을 본 요셉이 이렇게 말한다.

마 1:19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너무 괴로웠다! 오늘 이 시대가 생각하는 어떤 부정함보다 수십 배는 더 수치스럽고 부정한 모습을 본 것이다.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한 것이다. 바로 그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린다.

마 1:20-21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끊지 말라! 끊지 말라! 나도(하나님) 죽을 테니 너도(요셉) 죽어다오!

요셉은 그 음성 앞에 끊지 않는다. 차라리 자신이 죽는다.(끊지 않고 용서하고 풀어버림)

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오신다. 땅에서 풀면 하늘이 열린다. 요셉이 죽으니 하늘이 열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신다.

3. 임마누엘 -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마 1: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샘에게 보내는 편지〉

대니엘 고틀립! 고교시절, 학습장애로 낙제를 거듭한다. 결혼을 하였는데 아내가 암에 걸린다. 최선을 다해 아내를 돕고 마침내 아내는 회복된다.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손상을 입고 전신마비가 된다. 아내는 이혼을 통보하고 떠난다. 홀로 어찌 살 것인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어 누이와 부모가 죽는다. 게다가 둘째 딸에게서 태어난 유일한 손자 샘이 14개월 만에 자폐증 진단을 받는다. 어느 날 꿈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그 분이 내게 말했다. "너에게 세상의 일부를 맡길 테니 잘 돌보도록 하거라. 그것이 네게 부여된 임무다. 더 크게도, 더 좋게도 만들지 말고 그저 잘 보살피기만 하거라. 때가 되면 내가 다시 가져갈 것이니, 그 때 너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고통이 저주인줄 알았는데 이 삶 이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임무라니!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 아픔을 보니 그 아픔마저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2023 성탄절 예배

일 시 : 12월 25일(월)

시 간 : 오전 10시

장 소 : 본당(3층)